



페루통신원 주간동향

2023년 1월 4주

1. 폭력 시위로 Las Bambas 생산 중단 위기

- Las Bambas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며칠 동안 시위대가 아푸리막(Apurímac)에 위치한 광산 시설을 점령하려고 세 번이나 시도한 것으로 알려짐.
- 한편 Las Bambas는 남부 광산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봉쇄로 큰 문제를 겪고 있으며, 광업 활동이 완전히 마비될 위험이 있다고 보도함.

* 자료원: rumbo minero

2. Bateas社, 플랜트 용량 2,000 TMD로 늘릴 예정

- 아레키파(Arequipa) 지역의 위치한 Caylloma 광산 소유주인 Bateas社는 최근 환경영향조사 및 3차 수정 평가를 위한 문서를 국가환경인증원에 보낸 것으로 알려짐.
- 해당 문서에는 Caylloma 광산의 Huayllacho Beneficiation Plant의 용량을 1,500TMD에서 2,000TMD로 늘리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함.

* 자료원: rumbo minero

3. Abancay 및 Huanipaca 시장 광업 지원

- 에너지 및 광업부(Minem)에 따르면 아방카이(Abancay) 및 우아니파카(Huanipaca) 지역 시장은 현재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광업계를 지원하기로 결정함. 라울 페냐(Raúl Peña)와 에드윈 구띠에레스(Edwin Gutiérrez) 시장은 아푸리막(Apurímac)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광업의 중요성을 강조함.
- 한편 아푸리막(Apurímac) 지역은 현재 다수의 탐사 활동이 진행 중이며 채굴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함.

* 자료원: rumbo minero

4. 페루, 시위로 매일 US\$1억 손실

- 로물로 무초(Rómulo Mucho) 전 에너지 광업부 차관은 시위와 봉쇄로 인해 페루는 매일 약 US\$ 1억 손실을 보고있다고 강조함
-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가 GDP의 각각 0.2%와 0.5%를 차지하는 Antapaccay와 Las Bambas 같은 대규모 광산회사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함.

* 자료원: rumbo minero